



수험번호

성명

페이지

1/1

(가) 제시문은 생명 복제 기술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인간의 고유성, 복제 기술로 탄생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건강상의 문제, 가족 관계 설정의 문제, 우생학의 발생 문제,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훼손 문제가 그것이 되겠다. 이와 같이 인간 복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만이 아닌 윤리적 인간 고려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제시문은 인간 복제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이다.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간 세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은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복제 기술을 통한 유용한 의약품 생산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그리고 핵 이식을 통하여 유전적 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소모적인 윤리논쟁을 행하는 것보다 과학적 측면에서 복제 기술의 참모습을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가) 제시문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면서 이득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생명 복제 기술의 문제에서는 더 부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간 복제 기술에 대한 견해이다. 생명 복제 기술은 인간의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 다른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으로 복제된 생명체를 대한다면 그 생명체를 목적으로 대하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나는 인간 복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만이 아닌 윤리적 인간 고려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의하여 나는 (다)의 빈칸에 "나는 괴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족에 해당하죠"라는 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너의 인격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말을 했다. 시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수단으로 여겨질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할 대상이다. 고로 제 2의 이리스가 아닌 단지 이리스와 닮은 시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녀는 괴물이 아닌 카타리나 셸린의 가족인 것이다.